

어머니의 자존감과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 성 덕¹⁾

백성유치원

한 세 영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의표집을 통해 경기충청지역의 7개의 유치원에 재원중인 3-5세의 유아와 어머니 387쌍(남아 52.5%, 여아 47.5%)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어머니들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자존감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함을 밝혔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는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과 같은 어머니의 내면적인 문제에 먼저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며,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른 민감한 대처가 필요함을 밝혔다.

주요어 :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 유아의 문제행동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백성유치원 교사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론

유아기에 시작된 문제행동은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유아의 문제행동은 행동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Achenbach(1991)은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과 협소한 범위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고, 협소한 범위의 요인은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미성숙행동, 과잉행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Achenbach(1991)의 광범위한 범위의 분류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들로 개인요인과 가정환경요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발달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환경변인 중에서 부모요인을 살펴본 연구(강인향, 2009; 민정임, 한세영, 2012; 이남숙, 신선희, 김영희, 2008)들이 많았다. 그 결과 부모 요인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높다고 밝혀져 왔다(김영희, 이정미, 2002; 이영화, 유가호, 2001; Rutter, 1998).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ytton, 2000).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의 개인 요인(백종화, 2009;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2007; 한영옥, 김문혜, 2003)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정태숙, 2011; 허태희, 2008) 등이 연구되었다. 그 중 어머니의 개인 요인으로는 자존감(곽소현, 김순옥, 2006; 전영주, 2010), 성격특성(조숙현, 윤혜미, 2005), 우울·불안(윤혜미, 최문정, 2006) 등이 연구되었다.

Rosenberg(1965)는 자존감을 개인이 판단하는 혹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반면(Bachman & O'Malley, 1983),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해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한영옥, 김문혜, 2003). 즉,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적 편견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일부 연구에서 부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미국 어머니의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면화 문제행동 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한영옥, 김문혜, 2003). 우리나라 어머니의 경우 자존감과 문제행동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으나(한영옥, 김문혜, 2003),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가 좀 더 많았다. 일반유아의 어머니들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들이 현저하게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곽소현,

김순옥, 2006)가 있었고,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은 유아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박진아, 정문자, 2007; 이유진, 박영, 2005)도 있었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고(곽소현, 김순옥, 2006), 유아의 주의집중력 중 부주의가 낮게 나타나며(조금남, 2010),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자존감이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민주적이며 일관성 있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양육을 하였다(공경혜, 2004; 조금남, 2010).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불안정, 신체증상, 주의집중,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임민택, 2006; 허태희, 2008).

유아의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통제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통제는 복잡한 개념으로 통제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낮다는 보고가 있어(Baber, Olsen & Shagle, 1994) 통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aber, 1996). 이전의 연구들은 통제를 수용과 상반되는 양육방식으로 간주하였으나, Barber(1996)가 통제의 개념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분한 이후, Calzada와 Eyberg(2002)가 수용적 양육방식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혀 통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제를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분하여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Barber, Xia, Olsen, McNeely & Bose, 2012; Holmes, Dunn, Harper, Dyer & Day, 2013), 최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민정임, 한세영, 2012; Nelson, Yang, Coyne, Olsen & Hart, 2013).

심리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조정하고,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고, 경험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McShane & Hastings, 2009). 이러한 심리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진순옥, 김영희, 2003). 반면, 행동통제는 자녀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으로(Pettit et al., 2001) 필수적인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Gomez, Gomez, Demello & Tallent, 2001).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민주적, 수용적, 일관적, 합리적인 양육방식은 어머니가 자녀의 수준에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이성적으로 자녀가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며, 자녀의 의사와 느낌을 묻고 의사표현을 격려하는 행동통제를 포함하는데(이민영, 김광웅, 2011; Calzada & Eyberg, 2002), 어머니가 행동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가 행동통제를 자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여(Barber, Bean & Crane, 2006)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되고(김송아, 2008; 김희화, 2003;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Baber, 1996; Ramsden & Hubbard, 2002; Gray & Steinberg, 1999; Pettit et al., 2001), 두려

움,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민정임, 한세영, 2012). 이는 아동이 부모의 행동통제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 있게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미정, 2010). 그러나 민정임과 한세영(2012)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만 3세의 경우 공격성은 높아지고, 만 5세의 경우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하는데(김연, 2007), 이 경우 통제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 자녀의 행동에 자기표현의 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심리통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Calzada & Eyberg, 2002).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과잉행동과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권기정, 전숙영, 2010; 민정임, 한세영, 2012; Nelson et al., 2013). 특별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도 있었다(Casas et al., 2006; 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 이는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통하여 자녀들의 심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Aunola & Nurmi, 2005). 또한,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났다(김송아, 2008;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 왕해경, 2011;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Barber & Harmon, 2002; Pettit et al., 2001).

요약하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행동은 심리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지만, 행동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Barber & Olsen, 1997; Gray & Steinberg, 1999). 또한 수용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주로 행동통제를, 통제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주로 심리통제를 사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였다(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Calzada & Eyberg, 2002).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동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심리통제를 적게 사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각각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는 있으나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경로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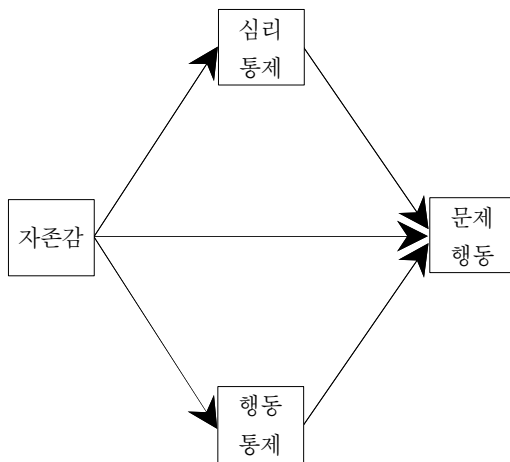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C시와 D시, K도와 C도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52.5%, 여아 47.5%이었고, 연령은 만 3세 28.7%, 만 4세 36.2%, 만 5세 35.1%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평균 35.3세($SD=3.78$), 아버지 연령은 평균 37.8세($SD=4.25$)였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28.4%, 대졸이상 71.6%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하 21.6%, 대졸이상 78.4%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유의표집한 7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후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가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수거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480부를 배부하여 395부(회수율: 82.3%)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부적절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자존감

어머니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Questionnair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 김연(2007)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아상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척도와 자기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84였다.

어머니의 통제

심리통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전숙영(2007)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아동학 전문가와 검토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어머니가 유아의 감정과 표현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유아의 심리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이 척도에는 “나는 아이가 내게 섭섭해 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아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되면 차갑게 대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심리통제의 의미와 내용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척도

는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83이었다.

행동통제. 어머니의 행동통제 척도는 Judith와 Christopher(2002)가 사용한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번안하고 수정하여 진순옥(2003)이 사용한 질문지를 전문가와 검토한 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역할, 규칙, 적절한 제한을 제시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이 척도에 포함된 “나는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이 왜 중요하고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물어 보았다.” 등의 문항은 행동통제의 정의 및 내용을 타당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69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Edelbrock (1986)이 개발한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Teacher Report Form: CBCL-TRF)를 황혜신과 황혜정(2001)이 번안한 척도를 민정임과 한세영(2012)이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한 질문지를 전문가와 검토한 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50문항으로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을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이 낮은 5문항을 제외하고 외현화 문제행동 25문항, 내재화 문제행동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주 싸운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 한다.” 등의 문항과 “걱정. 의심이 많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등의 문항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타당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척도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용되어 관련변수와의 상관성이 입증되어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외현화 문제행동 .91, 내재화 문제행동 .89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7.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다,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와 유

표 1.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어머니			유아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어머니	자존감					
	심리통제	-.32***				
	행동통제	.18***	-.02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23***	.46***	-.09		
	내재화 문제행동	-.29***	.40***	-.17**	.50***	
평균		2.91	2.10	3.12	1.82	1.60
표준편차		.49	.39	.51	.42	.39

** $p < .01$. *** $p < .001$.

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17에서 .50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분산팽창 계수인 VIF 값은 1.03에서 1.15로 나타났고, 모든 값이 3보다 작으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박광배, 2003).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의 모델을 기초로 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경로모형은 $\chi^2=.489(p>.05, df=1)$, GFI=.999, AGFI=.994, NFI=.997, CFI=1.000로 모두 .90 이상이며 RMSEA<.001로 .05보다 작아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델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32, 행동통제에 .18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고, -.15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통제가 낮게 나타났고, 행동통제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은 심리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43의 직접효과를 미치고,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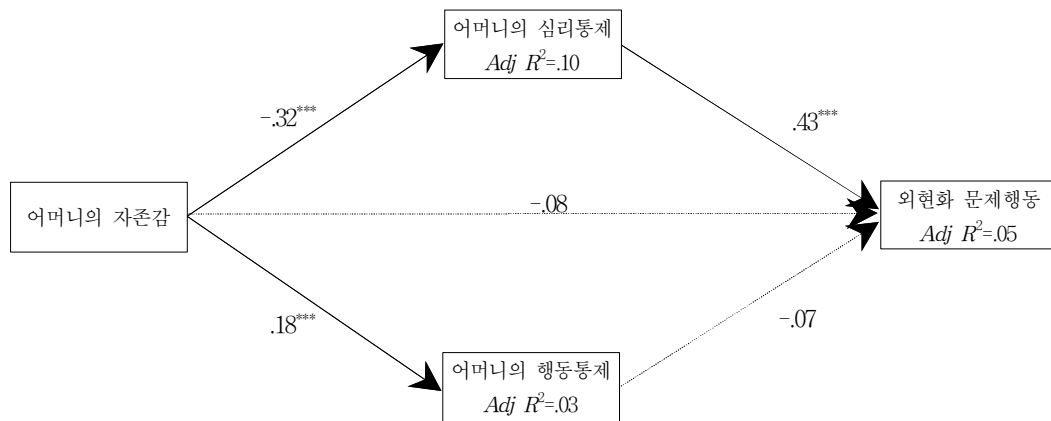
그림 1의 모델을 기초로 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구조모형은 $\chi^2=.489(p>.05, df=1)$, GFI=.999, AGFI=.994, NFI=.997, CFI=1.000로 모두 .90 이상이며 RMSEA<.001로 .05보다 작아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고, 모델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5와 같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달리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존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16의 직접효과를 미치고 -.13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존감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2.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델의 적합도 지수

(N=387)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적합도	.489	1	.999	.994	.997	1.0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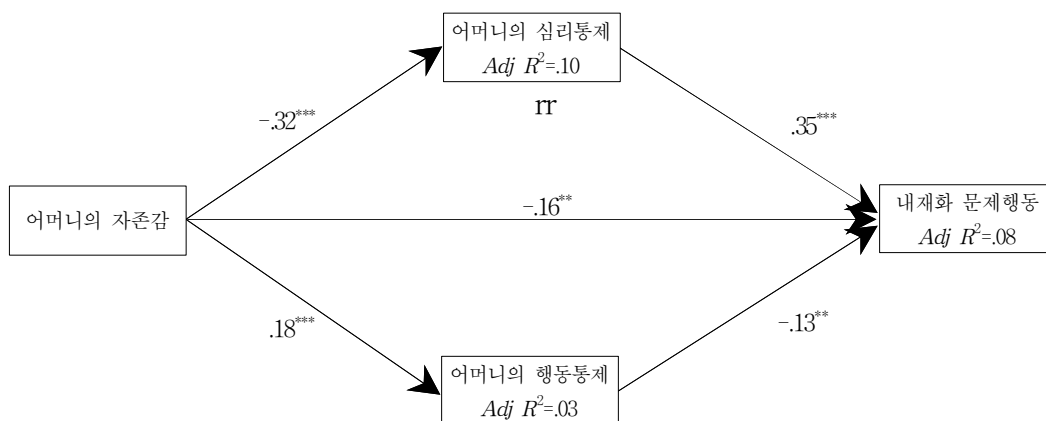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임

- -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2 = .489 (p > .05, df = 1)$. $^{***} p < .001$.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임

- -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어머니의 자존감,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2 = .489 (p > .05, df = 1)$. $^{**} p < .01$. $^{***} p < .001$.

표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자존감	심리 통제	-.32	·	-.32
	행동 통제	.18	·	.18
	외현화 문제행동	·	.15	-.15
심리통제	외현화 문제행동	.43	·	.43
행동통제	외현화 문제행동	·	·	·

표 4.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델의 적합도 지수

(N=387)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적합도	.489	1	.999	.994	.997	1.000	<.001

표 5.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자존감	심리통제	-.32	·	-.32
	행동통제	.18	·	.18
	내재화 문제행동	-.16	-.13	-.29
심리통제	내재화 문제행동	.35	·	.35
행동통제	내재화 문제행동	-.13	·	-.13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35의 직접효과를 미치고,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13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존감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통제를 매개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통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통제가 낮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존감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통제가 낮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동통제가 높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통제가 낮아지고 행동통제는 높아지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 등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부적절한 자녀양육행동을 더 한다는 정윤주(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자존감에 따라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노진아, 이숙, 2003; 손화희, 윤종희, 1990)를 입증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해 자신의 사

고, 행동, 양육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녀에게 적절한 규칙과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며, 애정철회, 비난,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 통제를 사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유능감으로 자녀에게 역할, 규칙, 적절한 제한 등을 사용하며 행동통제를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자존감과 심리통제간의 경로계수,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경로계수의 크기는 상당한데 비해 모델의 최종 설명력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인데, 이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탓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이 유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박진아, 정문자, 2007; 이유진·박영, 200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위축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김연, 2007; Hammen, 1992)를 지지해 준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낮게 나타나며, 유아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므로 유아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워 유아 역시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에 자신감이 있고 양가적이거나 망설이는 등의 불안정함이 없으므로 이 역시 유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 뿐 아니라 자녀 역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유아의 감정을 헤아리고 반응해주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이라 사료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통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미쳤다는 사실이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에 대한 모델링효과만으로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은 단순히 어머니를 모델링하는 것만으로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감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감소한 것이다. 거꾸로 해석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증가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어머니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잘못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 상태에 더 취약하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내재화 문제행동인 것이다. 우울이나 불안, 위축 등 내재화 문제행동이 공

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더 심리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내적 문제인 자존감이 유아의 행동문제인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심리적인 문제인 내재화 문제행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 그 원인을 달리 파악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내적 문제나 심리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자존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쳤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심리통제만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이 부모 양육방식의 질을 변화시켜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민아, 이채신, 2004; 김연, 2007; 정미경, 김영희, 2003; Davies & Cumming, 1994; Davies & Dumenci, 1999)를 지지하고, 어머니의 자존감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곽소현, 김순옥,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불안정, 애정철회, 비난, 죄책감 유발,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등의 심리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유아는 이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자신감이 사라져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등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유아들은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적절한 행동에 대해 알게 되어 두려움이 감소되고 어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축이 줄어들어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적어지는 등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심리통제가 자존감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과 달리, 행동통제는 자존감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뿐, 자존감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고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김희영, 2010; 김희화, 2003; Baber, 2002; Baber et al., 2006)와 만 3세의 경우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만 5세의 경우 심리통제만 영향을 미치며, 만 3세와 만 5세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정임과 한세영(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행동통제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아 행동통제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만 3세의 공격성과 정

적 상관이 있고, 만 5세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 3세와 만 5세의 주의집중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민정임과 한세영(2012)의 연구를 함께 고려할 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어머니의 행동통제의 역할의 신뢰성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행동통제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므로 행동통제라는 변인 자체의 정의나 성격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통제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과 같은 어머니의 내면적인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바람직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두 변수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매개효과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 예방 및 대처를 민감하게 해야 한다는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가 심리

통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행동통제의 의미와 정의를 반영하는 타당한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행동통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선행연구결과들과 부분적으로 불일치하였으므로 행동통제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척도는 현재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문항수가 불균형한 편이라 행동통제 척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행동 중 행동통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심도깊게 접근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및 유아의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향 (2009). 어머니 특성변인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지능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경혜 (200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권기정, 전숙영 (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2), 51-66.
- 김민아, 이재신 (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45-166.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연 (2007). 유아의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44.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김희영 (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노진아, 이 숙 (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81-93.
- 민정임,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17-137.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학지사.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 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진아, 정문자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73-295.
- 백종화 (2009).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화희, 윤종희 (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5(2), 1-22.
- 왕해경 (201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완벽주의 및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남숙, 신선희, 김영희 (2008). 어머니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83-104.
-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 및 내외통제소재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영화, 유가효 (2001). 어머니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이유진, 박영 (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37.
- 임민택 (2006).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 (1974). 자아개념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전영주 (201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 행동문제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정태숙 (2011).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및 가정-직장간 갈등이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금남 (2010).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태도와 유아의 집중력과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숙현, 윤혜미 (2005). 어머니의 성격특성,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잠재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9(2), 15-31.
- 진순옥 (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순옥, 김영희 (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생활과학연구논총*, 7(2), 137-156.
- 한영옥, 김문혜 (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단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신, 황혜정 (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25-3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1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6).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teacher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1144-1159.
- Bachman, J. G., & O'Malley, P. M.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 Olsen, J. E. (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87-315.
- Barber, B. K., Bean, R. A.,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135-1356.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ber, B. K., Xia, M., Olsen, J. A., McNeely, L. A., & Bose, K. (2012). Feeling disrespected by parents: Refining the measurement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 273-287.
- Cal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354-363.
- Case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Yeh, J. E.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 Dumenci, L. (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ti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Gomez, R., Gomez, A., Demello, L., & Tallent, R. (2001). Perceived maternal control and support: Effects on hostile biase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513-522.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574-587.
- Hammen, C.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olmes, E. K., Dunn, K. C., Harper, J., Dyer, W. J., & Day, R. D. (2013). Mother knows best? Inhibitory maternal gatekeeping,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Journal of Adolescence*, 36, 91-101.
- Judith, G. S., & Christopher, D.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 563-580.
- Kuppens, S., Grietens, J., Onghena, P. & Michiels, D. (2009).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07-623.
- Lytton, H. (2000). Toward of model of family-environmental and child biological influences on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20, 150-159.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481-495.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rt, C. H. (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8.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Michael, M.,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0, 657-66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98).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70.

1 차원고접수 : 2013. 7. 18.

수정원고접수 : 2013. 8. 16.

최종게재결정 : 2013. 9. 2.

Effects of Mother's Self-Esteem,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Jo, Sung-Duk

Baksung Kindergarten

Han, Sae-You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self-esteem,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others of 387 preschoolers from 3 to 5 year-old attending to 7 kindergartens located in Chungcheong and Gyeonggi area(boys 52.5%, girls 47.5%)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were sent out to them. The data thu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and AMOS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self-esteem clearly had an influence upon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an influence on the ways that young children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However, mother's behavior control had no effect on young children'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a mother's self-esteem on young children'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however, the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on young children'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was mediated by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Second, mother's self-esteem had an influence up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Moreover, the effect of a mother's self-esteem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was mediated by the moth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In conclusion, the effects of a mother's control behavior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under discussion.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factors which effect mothers (such as self-esteem) if we are to help prevent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ey words : mother's self-esteem,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al control, problem behavior